

경험 많고 까칠한 ‘전직 시의원’ 앵커

이도형, 정치인 출신 베테랑 방송인
내달일 경인방송 ‘까칠한 시선’ 데뷔
“시민들 입장에서 거침없이 질문할 것”

방송인에서 정치인이 되는 경우는 두 손으로 꼽아도 부족할 정도로 많다. 하지만 정치인에서 방송인이 되는 일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특이한 경력이다.

이도형 전직 인천시의원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까칠한 시선’ 앵커로 데뷔한다. 그는 현재 홍익정경연구소 연구소장이자 청운대 연구 교수이기도 하다.

방송은 오는 2월 1일부터 경인방송 90.7MHz에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들을 수 있다.

진행자는 처음일지라도 이미 베테랑 방송인이다.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6년이 됐다.

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 선거였다. 그는 20대 총선에 계양구 갑에 출마했지만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후 홍익정경연구소를 창립하고 연구소장으로서 일하면서 LG 헬로비전 방송에 출연했다.

인천뿐만 아니라 인천과 밀접한 경기도 김포와 부천의 현안, 정책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호응이 좋았다. SK브로드밴드, OBS 뉴스에도 출연하면서 방송 경력을 쌓았다.

덕분에 방송 자체에 대한 부담감은 크지 않다. 자신감도 있다.

이 전 의원은 “오래 방송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방송에 맞는 발음이나 어투, 카메라에 대한 부담감이 많지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까칠한 시선’ 앵커로 데뷔하는 이도형 전 인천시의원.

사진=김섯별 기자

않다”며 “다만 프로그램을 주도해야 하는 진행자가 쉬운 일은 아니니라 제의를 받고 두려움도 있었다. 새로운 도전이라는 생각에 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러 방면에서의 풍부한 경험도 그의 장점이다.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 6년, 시의원 6년으로 일하면서 정치 현장에 있었다. 방송에서 여러 정책을 설명하고, 신문에 경제 칼럼도 연재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여는 오프닝도 직접 쓸 예정이다. 보통 앵커들이 그날의 신문 기사를 보고 하고 싶은 얘기를 선택한다.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취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원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인천의 시사 프로그램인 만큼 그의 목표는 인천의 현안을 중립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전달하는 것이다.

한 달에 한 번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가 있다. 제물포 르네상스나 수도권 매립지, 행정구역 개편 등 인천의 주요 현안들을 되짚어 보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시의원은 “시사프로그램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시민의 입장에서 거침없이 질문할 수 있는 진행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것이다”며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 테니 청취자들이 많이 관심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섯별 기자

꽤 닫힌 소비자 지갑에 기업들도 경제 한파 ‘뽕뽕’

공과금·물가 상승에 소비심리 위축
지역내 제조업 BSI 전월비 5p 하락

인천지역 기업 및 소비자들의 경제심리가 한파와 함께 뽕뽕 얼어붙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발표한 기업 및 소비자 동향에 따르면, 1월 인천지역 제조업 BSI가 전월대비 5p 하락했다. 소비자 CCSI도 전월대비 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과 인건비상승’, ‘자금부족’ 등을 경영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매출 및 생산에 대한 전망도 매우 비관적이라고 응답했다.

소비심리도 금융대출 부담 및 각종 공과금과 생필품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가

계비 지출이 매우 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세와 주택대출 이자 상승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업들도 원자재비 상승,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설비투자 및 생산성 확대를 꺼려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전면 완화정책에 힘입어 국내외 여행 등 관광산업이 확대되면서 관련 업계 매출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제계 관계자는 “인천시를 비롯해 정부차원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점차 생산 및 소비 시장에도 예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

市, 강력한 한파에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11만 400가구에 10만원씩 현금 지급

인천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임돌안정소득세대,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난방비 122억 원을 특별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와 인천형 기초생활수급인 다임돌안정소득 11만 400여 가구에 각 10만 원씩, 모두 110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복지시설은 정부의 난방비 특별지원에서 제

외된 시비지원 시설(경로당 포함) 1838곳에 각 6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한다. 전체 금액은 11억 5000만 원이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추가신청 없이 현금 지급한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강력한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우선 난방비를 긴급지원한다”며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욱 기자

市교육청, 대외협력 강화 위한 ‘조직개편’ 단행

대외교육협력관 편성, 국회 협력 증대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대외협력을 강화한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인천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국회 업무협력이 긴밀하게 진행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회와 업무협력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대외협력과를, 경기도교육청은 대외협력과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교육위원회와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협력관을 대외교육협력관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국정감사를 제외한 국회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이 내용은 인천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한다.

민주시민교육국과 미래교육국이 각각 교육역량지원국, 학교교육국으로 바뀌고 마을교육지원단을 폐지한다. 학교·마을협력과에 마을교육지원단 업무를 재편성한다.

직속기관인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이 신설되며, 기관장 배정으로 특정직 1명을 증원한다.

또 학생 노트북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해 전산직 한시 정원 2명과 공공 건축 지원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직 한시 정원 7명을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배정한다.

이 정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둘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인천시교육청 조직개편 근거 준비가 마무리된다. 3월 1일자 교원인사 시점에 조직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유정복 시장이 지난 27일 시청 장미홀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정책자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市 정책자문단 ‘키오프’… 민선8기 공약 추진 본격화

주요정책 분야 씽크탱크 역할 수행

인천시는 지난 27일 시 정책자문단 제1회 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자문단 위촉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일반현황과 민선8기 역점추진사업 소개 후 자문위원들의 시정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또 정책자문단의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정책자문단은 민선8기 120개 공약 전반에 대한 공유를 통해 향후 회의에서 구체적 아젠다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책자문단은 인천의 미래산업, 경제·문화, 도시재생, 인구변화 등

인천시 주요정책 분야의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구성됐다.

유필우 정책특별보좌관이 단장을 맡고, 김진형 재능대학교 총장, 한주호 전 한국GM 부사장, 조우성 인천발전연구원 이사, 권혁철 인천 언론인클럽 회장, 김하운 (사)함께하는인천 사람들 대표, 김근영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이종영 대한변호사협회장, 김경배 인하대학교교수, 이종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원,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문단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경욱 기자

인천경제청, 송도 복합문화도서관 13년 만에 건립 ‘시동’

SLC와 C1구역 기본계획 수립 합의
설문조사 실시로 ‘주민 수용성’ 강화

지난 13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송도국제도시 6공구 내 문화시설 용지 C1블록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인천경제청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최근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SLC의 개발 이익을 활용해 추진되는 이번 용역은 내달부터 오는 8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주요 과업 내용은 개발 기본구상과 계획, 사업비 산출, 사업 타당성 분석, 시행 방식 마련, 운영계획 수립 등이다.

이번 용역에선 특히 지역주민과 운영기관, 그 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1000명 이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인천 송도국제도시 6공구 문화시설용지 토지이용계획도. 인천경제청 제공

높일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복합문화도서관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오면 SLC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오는 2026년 사업을 준공하고 개관해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복합문화도서관이 건립될 송도동 399-8번지는 지난 2010년 문화시설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지만 13년간 개발이 장기 지연됐다. 인근 공동주택 부지에 입주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조속한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했던 곳이다.

C1블록 개발은 당초 문화시설 건립 담당부서인 인천시와 연구구가 건립을 검토했으나 오는 2024년 개관 예정인 송도국제도시 중앙도서관과 기능이 중복되고 문화시설 확충사업이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앞으로 국내 도서관을 조사하고 우수한 해외 도서관의 사례도 분석해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 도서관의 모델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市, 수소차 환산 본격화… 역대 최대 2127대 보급 추진

투입 예산 1071억… 전년비 373%↑

수소충전소, 현 6곳서 8곳 추가 준공
승용·화물·버스 등 구매 보조금 지원

인천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127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투입 예산은 모두 10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3% 늘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수소전기차 보급을 시작했다. 인천시에 등록된 수소전기차는 지난해 말 기준 1650대로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는 액화수소생산, 충전소 구축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수소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인천공항 수소충전소.

인천시 제공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충전소도 현재 6곳에서 올해 8곳을 추가 준공해 모두 14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일 승용차 500대, 버스 119대, 화물차 3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1차 공고를 시행했다.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사업자·법인·단체다.

구매보조금은 국·시·비 포함 승용차 3250만 원, 버스 3억 원~ 3억 5000만 원, 화물차 4억 5000만 원이다.

구매지원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광근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소차 확산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기존 승용차 위주의 보급사업에서 시내버스, 화물차 등 수소전환을 가속화하겠다. 인천시가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욱 기자